

군자 마을신문 ‘산들바람’ 발간사
(부제 : 학교, 마을 안에서 성장하다)

군자초등학교장 장석영

존경하는 학부모님, 지역사회의 주민 여러분! 그리고 친애하는 학생여러분!
거리에서 만나 인사하는 소소한 즐거움, 그 즐거움 속에 저절로 우리
군자동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과
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. 특히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 학
교구성원들과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과 변화
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중, 시흥시에 군자동에
만 마을 신문이 없음을 알고 모두 함께 만들어
가는 마을 신문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
이 들었습니다.

사실로서의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 영원불멸의 생명체처럼 보이기도 하
지만, 기록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. 기억에는 한계
가 있고,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은 쉽게 잊혀지고
서로에게 다른 모습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. 우리들의 삶이 그리하듯
학교의 역사, 마을의 역사, 지역사회의 역사가 켜켜히 저장되고 기록되
면서 바르고 풍부해지리라 생각합니다. 조그마한 소식과 사건들이 모여
우리들의 학교와 마을의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. 자신의 생활
을 기록해 놓은 일기는 그 자체로 보면 사소해보일 수 있지만 세월이 흘
러 하루하루가 모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서전이 되고 역사가 되는
것이 아닐까요? 학교와 마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도 이와 마
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.

이번에 발간하는 우리 마을 신문 ‘산들바람’은 군자동에 소재한 학교

와 마을의 소식을 모아 처음으로 만든 신문이 될 것입니다. 우리의 바람인 ‘꿈과 희망이 자라는 따뜻한 공동체’를 위한 따스한 ‘산들바람’이 군자동을 넘어 시흥시, 나아가 전국 방방곡곡에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. 시작은 비록 작더라도 우공이산(愚公移山 :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결국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뜻)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.

군자동에서 살아가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마을 신문을 함께 키워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따뜻함과 정을 그리워하는 ‘산들바람’의 창간을 기리면서 우리 군자동에서 행복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.